

익명 커뮤니티의 딜레마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익명 속에 숨은 우리의 말 한마디, 책임질 수 있나요?

한림대학교 인권 새포터즈 4기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여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본 적이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혐오 표현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
체 응답의 62.0%

20대는 무려 79.7%, 학생은 72.8%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

2024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33,581건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필수 플랫폼이 된 익명 커뮤니티

대학 익명 커뮤니티는 단순한 온라인 공간을 넘어
대학 생활의 일부가 됐고, 강의 후기와 시험 정보, 학교 행사 일정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소통 공간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부담 없이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학 익명 커뮤니티가 대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소통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익명 커뮤니티는 대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과 비난, 익명 커뮤니티의 딜레마

그러나 익명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혐오 표현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자극적인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간의 갈등과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익명 커뮤니티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공간인
동시에 **갈등과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

사실적시 온라인(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적시 온라인(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물론,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이용 습관 자가진단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익명이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강한 표현이나 말투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정 학생이나 학과를 대상으로 한 비방이나 혐오
표현이 담긴 글을 가볍게 생각한 경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험 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경험 있다.



다른 사람의 게시글이나 댓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험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이용 습관 자가진단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익명이라는 이유로 내가 작성한 글에 대한 책임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무시하거나 비난한 경험 있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커뮤니티에서 본 정보를 별도의 확인 없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다.



비방이나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발견하고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이용 습관 자가진단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이용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

10~20점 | 비교적 신중한 이용

온라인에서 자신의 표현과 행동을 비교적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30점 | 주의가 필요한 단계

일부 온라인 이용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한 표현이나 정보 공유 방식을 점검해보세요.

31~40점 | 적극적인 점검 필요

익명성을 이유로 책임감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아질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1~50점 | 이용 습관 개선 필요

온라인에서의 표현과 정보 공유,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이용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 이 테스트는 온라인 이용 습관을 돌아보기 위한 간단한 자가점검이며, 개인의 성향이나 행동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건강한 대학 익명 커뮤니티 문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대학 익명 커뮤니티가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함께 책임 있는 이용 문화가 필요합니다.

익명성을 없애는 극단적 시도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상대를 존중** 하고 **책임 있는 표현을** 사용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혐오 표현과 비방 글을 줄이기 위해 운영자의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학 익명 커뮤니티가 단순한 감정 배출 공간을 넘어 건강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충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대학 익명 커뮤니티 문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세요!

출처



CIVICNEWS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47>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3935814484>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